

박스권에 갇힌 국내증시… 개인 투자자, 美 시장 ‘눈길’

지난 7일~8일, 개인 3494억 순매도
美 주식 보관금액 1000억달러 돌파
트럼프 랠리·연준 금리인하 시너지

국내증시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매수세를 보였던 개인 투자자들마저 미국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미 증시의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하면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8월 2조5090억원, 9월 7조3610억원을 매도한데 이어 10월에도 4조원 이상을 순매도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의 총 순매도 규모는 14조 2580억원에 달했다. 이탈 들어서도 코



코스피가 전 거래일(2564.63)보다 3.48포인트(0.14%) 내린 2561.15에 마감한 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33.52)보다 9.86포인트(1.34%) 상승한 743.38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약 165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지난 7~8일 코스피 시장에서 3494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반대로 미국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10월 31일까지만 해도 910억6587만 달러였는데, 약 1주만에 90억 달러 가량이 미국 시장

으로 이동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500선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동학개미들이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 반면, 미국 증시가 트럼프 랠리와 연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맞물리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 국내의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와 S&P500은 4% 이상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5.7%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희종 iM증권 연구원은 “이전 트럼프 집권 시절에 미국 증시는 여타 지역 증시 대비 강세가 뚜렷했고 달러화도 전반적으로 고공행진을 기록했다”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미국만의 강세가 이번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증시는 내년 초 트럼프 2기의 출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 부각으로 국내 증시의 경우 정치, 경제, 안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특히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위축이 불가피해 내년 수출 전망이 악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트럼프 재정 정책 중 감세와 국제 발행 고려 시 미국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따라온다”며 “이는 원화 약세를 자극해 외국인 매도 물량 출회를 자극하는 부정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밸류업 공시 급증에도… ETF 전망은 ‘글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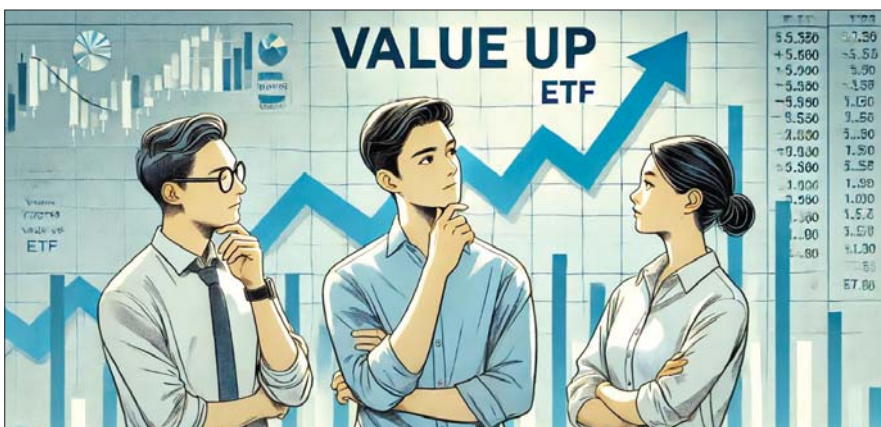
39개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단기간 ETF 수익률 높이기 어려워
참여도 저조… 전체 약 1.4% 가량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상장사들이 속속 밸류업 공시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됐지만 금융투자업계는 향후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힘들다는 분위기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총 39개사다. 지난 5월 말 기준, 밸류업 계획을 자율 공시로 내놓은 상장사가 9개사였던 것과 비교하거나 지난 8월까지 밸류업 공시에 나선 상장사는 10개사도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에 급속도로 밸류업 공시 기업이 많아진 셈이다. 반년도 채 안되어서 밸류업 관련 자율 공시는 4배 이상 증가한 셈이고, 예고 공시까지 포함하면 44개사로 증가한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에 집중돼 있던 구성도 현대차, LG전자, 롯데쇼핑, 현대백화점그룹 등 다양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들의 참여도가 높아져 업권도 다양해졌다.

밸류업 공시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밸류업 ETF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지만, 아직 수익률은 평균 3% 이상 이익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12개 자산운용사와 삼성증권은 각각 한국거래소가 100개 우수 밸류업(가치제고) 기업을 선정해 마련한 ‘코리아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밸류업 ETF에 투자할지 고민하는 투자자들’ 모습.

밸류업 지수’를 기초로 한 ETF와 ETN을 상장했다. 이 중 ETF는 총 12개 상품이 출시됐다.

지난 7일 기준 밸류업 ETF 중으로 삼성자산운용의 ‘KODEX코리아밸류업’ ETF의 순자산은 230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8일까지 수익률 2.54%를 기록했다. 타임폴리오운용의 ‘TIMEFOLIO코리아밸류업액티브’ ETF는 8일까지 3.16%의 수익률을 기록해, 밸류업 ETF 중에서는 유일하게 3%대 수익률을 달성한 ETF로 나타났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공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래소가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 변경과 다양한 밸류업 후속지수를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투자자들의 수요를 다방면에서 충족시킬 가능성도 크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 전반에서는 아직 공시에 참여한 상장사가 적고, 현재 지수가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한 경향이 있어 단기간 수익률을 높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2793개의 기업 중(지난 10월 기준) 밸류업 자율공시에 참여한 기업이 39개라는 통계는, 밸류업 참여도가 전체 약 1.4%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같이 명확한 기업가치 제고 목표를 밝히고 주주 환원 정책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는 곳이 많아져야 하는데 이런 공시를 내놓는 게 상장사로서는 쉽지 않은 과제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율 공시든 예고 공시든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부실 공시를 내놓는 기업들도 있다”며 “더군다나 밸류업 참여도가 저조한 상황에서 일부 시종이 큰 기업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가 지속되면 수익률 전망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B증권 애널리스트, 내년 증시 전망 제시

내일까지 ‘KB 애널리스트 데이’ 진행

KB증권이 리서치본부 애널리스트들이 모여 내년 연간 증시 전망을 제시하는 ‘2024 KB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KB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이 담당 산업 부문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10일 KB증권에 따르면 11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애널리스트 데이는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되며, 누구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1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기업분석부와 투자컨설팅부 애널리스트들이 담당 산업 부문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반도체부터 전기전자, 자동차, 통신, 정유·화학, 건설, 방위산업·조선, 철강,

유틸리티, 미디어, 게임, 제약·바이오, 금융, 미국 주식 등 주요 섹터에 대한 투자 전망을 제시한다. ESG리서치팀에서는 ESG와 관련된 주요 이슈 분석 내용을 발표한다. 내년 유망 테마인 K-식자재, 우주항공, AI, 비만치료제, 도심항공교통(UAM), 수소, 세포치료제, 골프, 미용 의료기기, 우주항공을 주제로 한 심층 분석도 제공한다.

12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15분까지 자산배분전략, 매크로 부문 애널리스트들이 2025년 경제·금융 시장 전망을 발표한다.

자산배분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 환율, 원자재, 채권, 국내 주식 전략, 미국 주식 전략, 아시아 주식 전략,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 등 각 분야 담당 애널리스트가 내년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

/허정윤 기자

삼성운용 “KODEX ETF로 연금력 높여요”

이달 말까지 3종 이벤트 진행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상장지수펀드(ETF) 연금력’ 3종 이벤트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0월 론칭한 삼성금융 4사의 공동 퇴직연금 광고 ‘삼성금융 연금력’과 연계해 KODEX ETF 투자로 연금력을 높이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번째 이벤트는 ETF 보유 인증 이벤트이며, 대상 ETF는 KODEX 전 종목이다. 퇴직연금(IRP·DC) 및 연금저축 계좌에서 KODEX ETF를 10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내역을 인증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비스포크 에어드레서(1명), 비스포크 AIS 팀 로봇청소기(2명),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카운터탑6인용(5명)을 제공한다. 두번째 이벤트는 연금력 상승의 비밀

을 맞추는 빈칸 채우기 퀴즈이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e카드 1만 원권(300명)을 지급한다. 마지막은 KODEX ETF 연금력 이벤트를 본인의 SNS에 공유하고 게시물 링크를 인증하면 된다. 추후 추첨을 통해 BBQ치킨세트(200명)를 제공한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직장인들이 은퇴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적절한 연금계좌 관리 방법과 어떤 상품을 담아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퇴직연금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자산운용은 KODEX홈페이지에 ‘ETF로 연금투자’라는 연금 전용 메뉴를 새로 만들었다.

/원관희 기자

위츠, 일반 공모주 청약 경쟁률 223.16 대 1

청약 3만8858건, 증거금 2690억

전력전송 솔루션 전문기업 위츠가 일반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223.16대1의 비례경쟁

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츠의 일반 청약에는 총 3만8858건의 청약이 청약액의 절반을 선 납부하는 증거금은 약 2690억원이 모였다.

앞서 진행했던 기관투자자 대상 수

요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츠의 일반 청약에는 총 3만8858건의 청약이 청약액의 절반을 선 납부하는 증거금은 약 2690억원이 모였다.

앞서 진행했던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츠의 일반 청약에는 총 3만8858건의 청약이 청약액의 절반을 선 납부하는 증거금은 약 2690억원이 모였다.

/원관희 기자